Serial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강 윤(1)

Korean Architects - Kang-Yoon

건축과의 만남

김승제 /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Seung-Je

1.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배경
(필자 / 윤인석)
2. 박길룡(1) - 건축수업과 활동
(필자 / 윤인석)
3. 박길룡(2) - 작품과 건축사상
(필자 / 윤인석)
4. 박동진 - 생애와 작품
(필자 / 윤인석)
5. 강 윤(1) - 건축과의 만남
(필자 / 김승제)
6. 강 윤(2) - 강윤과 Vories
(필자 / 김승제)
7. 강 윤(3) - 해방 후 작품활동
(필자 / 김승제)

1. 근대화와 외래건축문화의 도입

조선의 오랜 쇄국정책은 1875년 강화도사건(雲揚號사건)을 계기로 개국의 급진일로를 걷게 된다. 다음해인 1876년에는 江華島條約(丙子修好條約)으로 부산(1876), 원산(1880), 인천(1883)이 개항되며, 1882년에는 한미통상조약에 이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덴마아크 등과도 통상조약을 맺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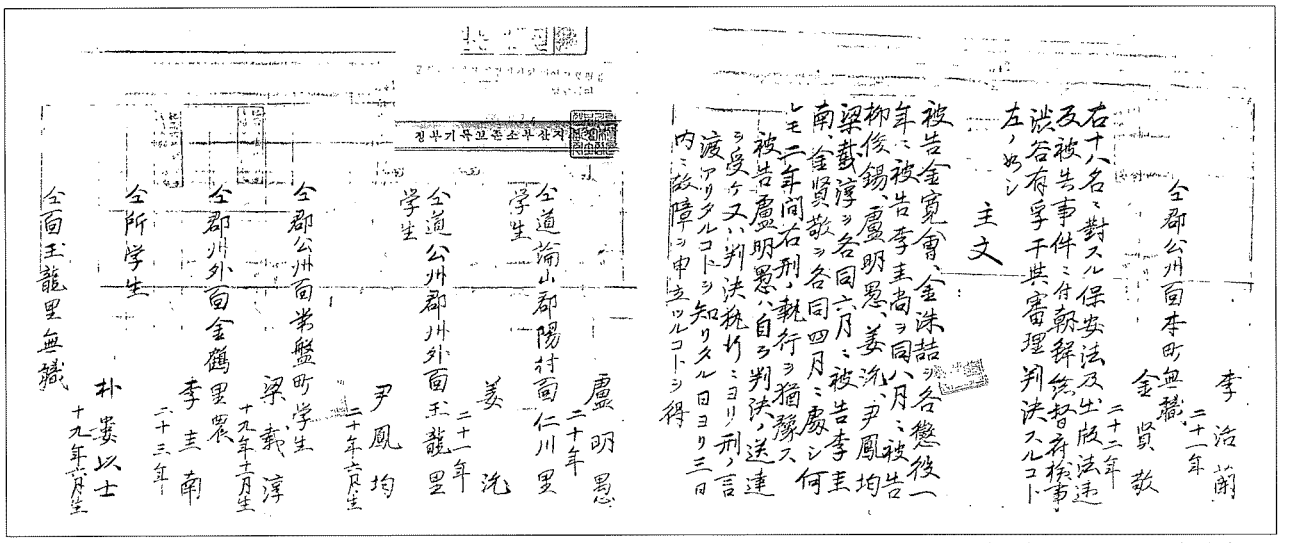
그 당시는 개국이라 하여도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으며 유교사상이 국민전체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으며, 1703년경에는 천주교가 들어와 박해속에서도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한편 개신교는 선교사업을 위하여 1885년 4월에 북감리파의 H. G. Appenzeller내외와 북장로파인 H. Underwood, 북장로파 여선교본부 M. F. Scranton부인과 그의 아들 W. B. Scranton등이 초대 선교사로 미국에서 아라비아 선박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옴으로써 시작된다. 장로파는 전도를 위한 교회활동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감리파는 교육 및 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의 개화기史는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사인 동시에 미국의 개신교 신자들에 의한 기독교의 한국 선교사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때문에 근대서양건축의 도입은 직접적으로는 서양인이, 간접적으로는 일본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서양인의 경우는 동양의 거점으로서 중국과 일본에 건축설계사무소를 가지고 조선에서 건축활동을 하였다. 개국이후 서양의 건축가로서 알려진 사람으로는 조선총독부를 설계한 독일인 Lalande를 비롯하여 영국인 G. R. Harding, 러시아인 Savatin, 독일인 Rothkegel, 프랑스인 Victor Poisnel, 영국인 S. Dixson등을 들수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한 두작품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미국인 William Merrell Vories의 경우는 한반도와 관계를 가진 작품활동 기간이 1914년에서 1942년까지로 최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의 한반도에서의 작품수도 106점(확인작품수)으로 최다수이기도 하다.

이러한 뜻에서 Vories는 근대 서양건축을 한반도에 도입한 건축가로서 다른 서양의 건축가보다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영명학교 제10회 졸업사진(1920년) : 뒷줄 우측에서 두번째가 강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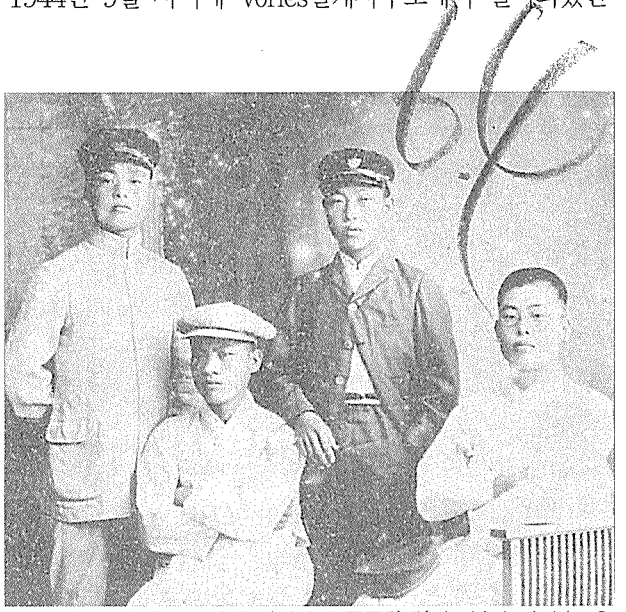
1919년 8월 공주지방법원의 강윤에 대한 판결문

2. 강 윤 연구의 필요성

본고에서는 일제 암흑시기에 Vories건축사무소에 입소하여 한국의 근대화에 따른 건축문화 도입에 많은 영향을 끼친 姜允(1899~1974)에 대하여 그의 숙명적인 건축과의 만남과 그의 설계행적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조선인으로서 국내에서 혹은 국외에서 건축활동을 한 사람은 수십명에 이른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건축교육을 통하였으나 강윤의 경우는 건축에 입문하기까지의 그 특수성이 너무도 그 시대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때문에 다른 초기근대의 한국건축가들보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 이유도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외에서 건축설계실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조사는 기존의 문헌조사와 함께 현재 1908년 3월부터 1944년 9월 사이에 Vories설계사무소에서 실시되었던 설계도면 원도(현재 大阪예술대학 건축학과 山形政昭교수 연구실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0년 8월 직접 방문하여 입수하였다)의 입수와 수차례의 일본 현지답사, 그리고 Vories설계사무소에서 당시 강윤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무원과 그를 알고 있는 생존자를 직접 방문하였다. 조사는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실시되었다.



3·1독립운동당시 공주시내 시위사건 주동학생(좌로부터 양재순, 윤봉균, 강윤, 홍승억)

3. 抗日運動과 渡日

3. 1 출생

강윤은 1899년 4월 21일 忠淸南道 論山郡 陽村面 仁川里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약 160㎝의 키에 6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다소 큰 눈에 안경을 끼었으며, 1920년 공주영명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대장에는 11회로 되어있으나 졸업증에는 10회로 기록되어 있다.

3. 2 독립운동

1919년에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던 사건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때 강윤은 公州永明학교 재학중이었다. 공주지구의 3·1독립만세사건의 주동자로는 영명학교의 학생들이었던 김수철, 양재순, 유관순의 오빠인 유관옥, 사촌오빠인 柳俊錫(11회 졸업), 강윤, 노명욱 등이 있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18명은 공주지방법원에서 1919년 8월 29일에 형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언도받는다. 영명학교는 교직원과 전교생이 모두 독립만세에 참여하였다. 그가 졸업한 1920년 다음해에는 영명학교 졸업해당자가 전원 복역 혹은 피신 등으로 졸업자는 한사람도 없었다.

공교롭게도 강윤이 후에 日本땅 Vories建築事務所에 들어간 1920년 10월 12일은 그와 함께 공주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유관순(1904~1920)이 공주경찰서를 거쳐 서울에서 7년형을 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한 날이기도 하다. 유관순은 永明學校 初等科 2년 수료후 영명여학당 설립자인 사애리시의 추천으로 1916년 9월에 梨花學堂 3학년에 입학하였다. 유관순은 1919년 3·1운동

초대 영명학교 남학당장Frank, E. C. Williams(1883~1962)

당시 고향으로 내려와 공주 3·1운동의 도화선을 만들었다. 초대 내무부장관인 조병옥박사(2회 졸업)와 초대 상공부장관이며 중앙대학교 창립자인 임영신도 永明학교 출신이다.

天安市 木川面에는 독립기념관이 있다. 이곳은 유관순이 태어난 곳이다. 독립기념관의 입지선정에 이 지역에서 독립지사가 많이 태어났다는 이유도 있다.

3. 3 W. M. Vories와 Frank E. C. William

강윤이 공주지방법원에서 6월형을 선고받을 그 무렵인 1919년에는 일본에서 W. M. Vories가 영명학교 Frank E. C. William교장을 찾아왔다. 1905년 미국 뉴욕 YMCA본부에서는 대학을 갓 나온 위의 두 미국 청년을 선교활동을 위하여 각기 조선과 일본에 파견하였다. William이 조선의 공주에 도착하여 1906년 草家에 永明남학당을 세웠고, Vories는 일본의 시골도읍인 近江八幡상업학교에서 영어교원 생활을 2년간 마치고 1907년 Vories건축사무소를 차렸다. 이런 연유로 두 사람의 우정은 그들이 일본에서와 미국에서의 생을 다 할 때까지 이어졌다.

3. 4 영명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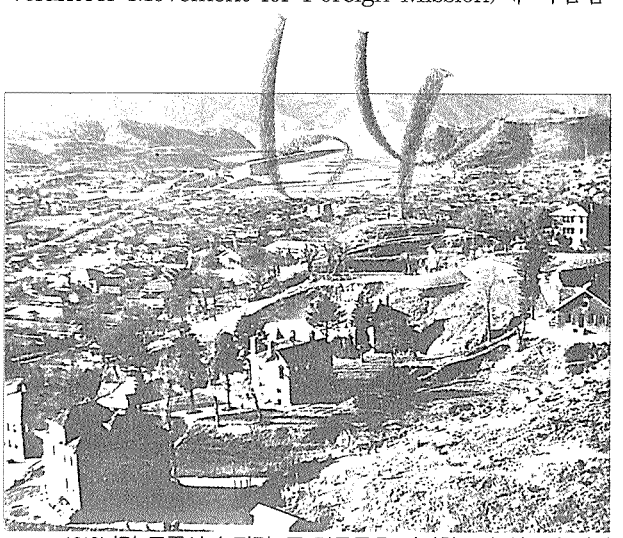
영명학교는 1905년 미국인 선교사 사애리시(史愛利施, Alice, Sharp, Hammond)부인이 여학당을 1906년에 윌리엄즈(禹利岩, Frank Earl Cranton William, 1883~1962)목사가 남학당을 고도 공주에 세웠다.

Frank E. C. William은 1883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Fortcallins에서 출생하였다. 1905년 Denver대학을 졸업하고 1906년 해외선교 지원자 학생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에 가담함으로써 한국에 파견되었다. 파견직후인 1906년 영명학교에 남자학교를 세워 스스로 교장에 취임하였다. 이로부터 1941년 일본경찰에게 추방을 당할때까지 실로 35년동안 영명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애국지사와 믿음이 투철한 기독교인과 나라의 일군들을 양성하였다. 강제추방당한 그는 인도로 가서 선교활동을 하는 한편 그곳의 가자아밭(Gaziabad)농업학교 교장을 지냈다. 그후 8·15해방이 되면서 맥아더 장군의 명으로 미군사령부에서 민정장관실 농림부 담당 고문을 지냈다. 그뒤 1953년 11월 건강문제로 귀국하여 캘리포니아주의 콜랜델 자택에서 요양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962년 6월 9일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4. Vories건축사무소 입소까지

3·1독립만세사건의 주동자로서 형집행을 언도받은 강윤은 그후 영명학교장이며 W. M. Vories와도 知人이었던 선교사 Frank E. C William(1883~1962)의 주선으로 국내 소요가 채 가시지 않은 시기인 1920년 10월 12일 일본 滋賀縣 琵琶湖 湖畔에 지극히 일본적인 시골의 작은 도읍인 近江八幡市에 있는 Vories건축사무소의 일원이 되었다. 이 지역 주변에는 百濟寺가 있고 石佛寺도 있다. 이 지방의 농토에서나 집터에서는 지금도 佛像이 출토되며, 石佛寺의 경내로 옮겨진 것이 수천점은 족하다. 또, 이 지역에는 1607년~1811년의 약 200년간 12차의 조선통신사가 왕래한 도로가 있다. 近江八幡市를 지나는 이 길을 일본인들은 朝鮮人街道라고 이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반도와는 그 역사적 인연이 깊은 지역이기도 하다.

당시 강윤과 함께 Vories사무소에 근무하였던 사원중 생존자의 한사람인 隈元周輔(구마모토)씨는 강윤이 Vories건축사무소원이 된 동기와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1923년 동경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마침 동경의 조선 YMCA(Vories 설계)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이었다. 당시 일본인들의 집단적인 조선인 학살을 자행할때 이 조선 YMCA현장의 몇몇 조선노동자들은 가루이자와(輕井澤)의 Vories건축사무소로 구명을 위해 피신하였다.」 隈元周輔(1906년~1936년



1910년경 공주시가 전경, 큰 건물들은 영명학교와 선교사 저택

미국감리회 해외선교100주년 기념공사(200坪) - W. M. Vories 설계

William Merrell Vories(1880~1964)

Vories건축사무소 근무)씨는 강윤과 함께 사무소에서 근무한 생존자로 현재 横浜市에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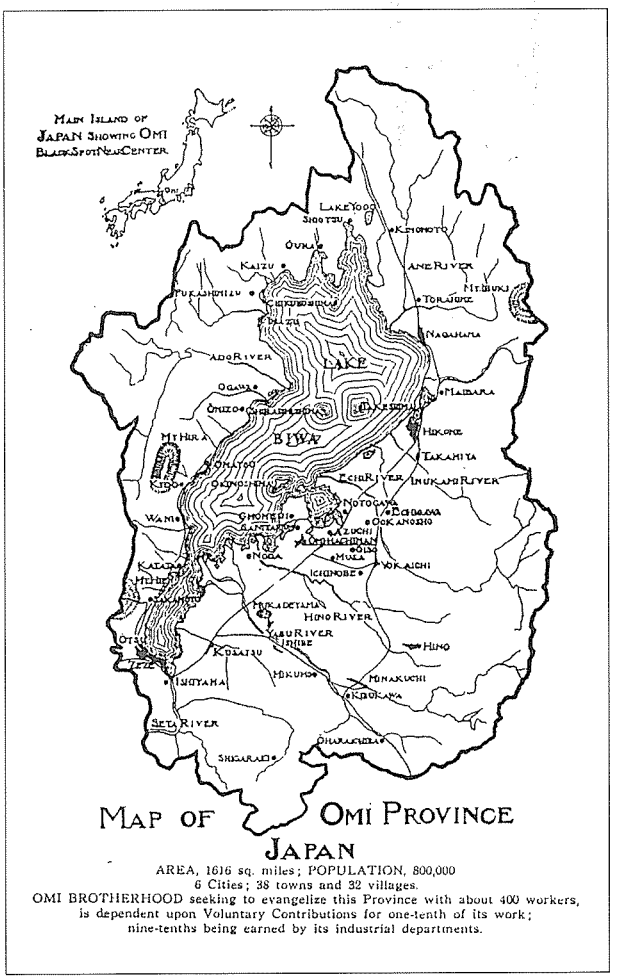
그가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 강윤이 Vories 건축사무소에 입소하게 된 계기를 문의했을 때의 답이었다. 물론 이 말은 그의 기억의 착각일 뿐이지만, 동경대지진때의 조선인의 처지와 조선인에게 Vories가 어떻게 비쳤는가 하는 일면이 엿보인다.

隈元周輔씨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믿었다. 그 뒤에 大阪에 있는 Vories사무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영명학교 윌리엄 교장에 대한 이야기와 강윤이 3·1운동에 연류된 사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동경의 조선학생기독교청년회관(YMCA)의 설계원도에는 1929년 3월 15일로 명시되어 있어 상기의 隈元周輔씨의 강윤에 대한 회고는 그릇된 기억이었으나, 사무소 일원이었던 월남인 林邦彦(월남성 : VU, 1897~1939)의 경우도 프랑스 통치하의 월남청년으로 본국에서 항불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으로 밀항하여 Vories에게 연결된 예를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일본의 사회상과 Vories의 사회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그 당시의 Vories건축사무소에는 미국인, 소련인, 월남인,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강윤이외의 또 한사람의 조선청년인 임덕수라는 이름이 社籍簿에 보인다. 임덕수는 강윤과 같은해에 Vories사무소에 입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Vories와 이어졌는지는 알길이 없다. 임덕수는 강윤보다 키가 크고 호남형이었다고 한다. 그는 서울출생이라는 것과 1927년 서울에서의 결혼사진이 Vories사보에 실려 있다.

임덕수(중앙)/1925년



일본 滋賀縣 琵琶湖 近江八幡市 위치

隈元周輔氏의 말에 의하면, 임덕수는 입사 10년만인 1930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약25년후인 1955년경 大阪의 Vories건축사무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在京원로 건축인들은 임덕수를 아는 이가 한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때가 3·1만세사건 다음해인 1920년이라는 시점과 Vories라는 인간으로 보아 임덕수는 공주의 강윤과 유사하게 경성지역에서 3·1독립만세사건에 깊이 관여한 청년으로 추정된다. 한편 훨씬 뒤인 1930년대에 또 다른 조선청년 2명이 Vories사무소원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은 찾지 못하였다.